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의 담화문

2008년 1월 27일 저녁 7시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향년 97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이에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북아시아 지역 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전문을 지역 소식에 실는다.

오 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지난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과 일본 및 아시아 전역의 회원들을 사랑하셨으며, 선지자로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한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요 회장이셨

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 회원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그분의 가족과 그분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시에 이 위대한 사업의 참됨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더합니다. 우리는 힝클리 회장님을 많이 그리워할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그분에 이어 부름 받으실 분들을 통해 계속하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

폴 폴라이 박사와의 음악 노년의 모임



2 008년 1월 22일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에서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이자 '지나 바하 국제 피아노 재단(Gina Bachauer International Piano Foundation)'의 총책임자인 폴 폴라이 박사(Dr. Paul Pollei)와의 음악 노년의 모임이 열렸다. 독실한 후기 성도이자 뛰어난 음악가인 폴라이 박사는 BYU

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또한 '지나 바하 국제 피아노 재단'에서 주최하는 콩쿠르를 통해 피아노를 사랑하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내고 있다.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한 폴라이 박사와의 음

악 노년의 모임은 한국인 제자 두 명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먼저 안양 스테이크의 최선빈 형제가 간증과 함께 연주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변하는 최선빈 형제의 연주는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았다. 최선빈 형제의 간증과 연주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사람은 폴라이 박사의 또 다른 애제자, 손민주 자매였다. 부드럽게 시작한 손 자매의 연주는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고, 건반이 부드럽게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 또한 편안하게 바뀌었다. 두 제자의 연주가 끝난 후에는 폴라이 형제와 함께 한국을 찾은 재단 매니저 캐리 빌링스 형제의 간증이 이어졌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모터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피아노에 흥미를 붙여 전공까지 하게 된 사연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폴라이 박사는 자신이 음악을 하게 된 이야기와 대학 시절 함께 했던 동료이자 현 태버나클 부지휘자와의 학창시절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폴라이 박사는 "우리가 소망하고 노력한다면 나중에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기사, 사진 제공: 형상일 기자>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내한

2008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내외가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과 에번즈 자매가 동행하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 내외와 함께 마산과 부산, 그리고 순천 지역을 오가며 그들이 전한 사랑과 감동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3박 4일간의 그 발걸음을 되짚어 본다.



마산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을 마친 뒤 회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옥스 장로

2월 21일 마산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멀리 대구에서도 왔다. 주님의 사도가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21일 저녁, 마산 와드에서 있었던 옥스 장로 방문 특별 노변의 모임은 비단 마산 스테이크 뿐 아니라 대구 스테이크에서도 몇몇 회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옥스 장로가 지나가는 길마다 열렬히 손을 흔들었던 그들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산 스테이크 회원들도 아침 일찍부터 모임 준비를 하고, 몇 주에 걸쳐 합창 연습을 하는 등 옥스 장로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임 시간인 저녁, 드디어 모습을 보인 옥스 장로 내외와 에번즈 회장 내외, 그리고 최윤환 장로 내외가 마산 와드 예배실로 들어섰다. 모임 시작 30분 전부터 기도와 찬송으로 기다렸던 회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들을 환영했다.

첫 연사로 선 에번즈 회장은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선교 사업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며 선교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더불어 선교 사업을 꿈꾸는 청년 독신들에게 “그것에 대해 부모님과 감독님과 이야기 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그 말씀 뒤로 한 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가십시오.”

에번즈 회장의 말씀이 끝난 뒤 옥스 자매가 연단에 섰다. 옥스 자매는 정확한 발음으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 뒤 “선교 사업은 일종의 교육”이라며 에번즈 회장에 이어 선교 사업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교회가 없는 삶은 방어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마쳤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옥스 장로는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무색하게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다. 옥스 장로는 말씀을 시작하며 “이 마산 스테이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옥스 장로는 특별히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 교회는 가정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한 그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또한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돕기 위해서이지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옥스 장로는 마지막으로 계시와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교회는 하나님께 닿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차적인 통로로 선지자에 이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도를 통한 직통로입니다.”라고 가르쳤다.

2월 23일 부산 스테이크 대회 신권 역원 모임 및 토요 저녁 모임

22일 하루 동안 부산 선교부 대회에 참석했던 옥스 장로의 일정은 23일에도 멈춤이 없었다. 부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옥스 장로와 최윤환 장로는 주님의 사업을 강화하고 개인의 영성을 고취시키는 여러 말씀과 가르침을 부산 지역의 회원들에게 전했다.

23일 스테이크 대회 신권 역원 모임에서 최윤환 장로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제 개인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신권 형제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전하며 힘차게 말씀을 마무리했다.

뒤이은 토요 저녁 모임에서 옥스 장로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복음도 아니고, 상호부조회도 아니고, 와드나 지부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와 선지자의 간증이 우리 교회의 근간”이라는 원리를 가르쳤다.



옥스 자매가 선물한 간증 장갑을 끼고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부산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들. 왼쪽부터 박의영, 박나영, 이민하, 박소영

2월 24일 부산 스테이크 일요 총회

부산 스테이크 대회 일요 총회는 주님의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 든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회 장소인 수정 와드를 향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발한 먼 지역의 회원들과 한 시간 먼저 도착해서 모임 준비를 한 가까운 지역의 회원들 모두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찼다. 입추의 여지없이 빼곡하게 들어선 회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온 옥스 장로는 참석한 회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사랑을 전했다. 옥스 장로와 직접 악수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회원도 있었고, 두 손을 꼭 쥐 채 하염없이 흔드는 회원도 있었다. 악수를 마친 뒤 연단에 오른 옥스 장로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뒤이어 모임이 시작되었다. “고통과 시련 또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이순철 부산 스테이크 회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부산 스테이크 회장단의 말씀이 끝난 뒤 부산 스테이크 합창단의 우렁찬 음성으로 ‘굳도다 그 기초’가 울려 퍼졌다. 합창 뒤에 연단에 선 최윤희 장로는 구도자와 신회원

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입니다.”라고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저는 한 번도 이 복음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며 뜨거운 간증을 전했다.

최윤희 장로의 뒤를 이어 연단에 선 옥스 자매는 ‘간증 장갑’을 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연단으로 불렀다. ‘간증 장갑’은 옥스 자매가 손수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전한 선물로 장갑을 낀 채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다.

이날 모임의 마지막 연사였던 옥스 장로는 “오늘 이 모임에서 아주 큰 기쁨을 느낍니다.”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했다. 그리고 부산 스테이크 대회의 독특함으로 “매우 조용하다”는 점을 꼽으며 영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에 찬사를 보냈다. 옥스 장로 역시 모임에 참석한 구도자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랑하는 만큼 구도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며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또한 모든 회원들을 향해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했다.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옥스 장로는 공항까지 배웅 나온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떠남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 힘찬 몸짓 속에 세월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비행기에 오르는 옥스 장로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과 간증으로 무장한, 주님의 사도 그 자체였다.



옥스 장로를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부산 스테이크와 마산 스테이크 지도자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

2월 23일~24일 순천 지방부 대회

한편, 22일 오전까지 옥스 장로와 함께 한 후, 순천으로 향했던 에번즈 회장은 순천 지방부 대회를 감리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순천 지방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날카롭게 부는 바람도 지방부 대회를 향한 회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토요 저녁 모임에서 연단에 선 에번즈 회장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부름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신권 지도자는 영감을 구하여 부름을 주어야 하며 회원은 주어지는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이 설혹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름을 갖고 있는 동안 매일 끝없이 그 직에 더욱 적합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영을 고양시키는 에번즈 회장의 말씀은 일요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수십 년 동안 천여 명의 회원들에게 부름을 주워 온 증인으로서 초등학교 교사든, 지부 회장이든 모든 부름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간증했다.

모임에 참석한 순천 지방부의 최민희 자매는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당장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5학년인 김현지 자매는 토요 저녁 모임에 다녀온 어머니로부터 에번즈 장로님이 어떻게 8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들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나 대단하다”며 큰소리로 활짝 웃었다. 순천 지방부의 회원들은 대회 내내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느꼈고, 에번즈 회장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

(기사 제공: 권정미 기자, 김민정 기자, 조연화 기자)



순천 지방부 대회에 참석한 에번즈 회장과 패리튼 대전 선교부 회장 내외와, 그리고 순천 지역의 선교사들과 회원들

사랑의 다리 잇기 휠체어 기증식



휠체어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최윤환 장로와 교회에 감사를 표한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총재

2008년 2월 29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교회가 휠체어 500대를 전달하는 ‘휠체어 기증식’이 있었다. 2003년부터 계속되어 온 휠체어 기증은 전국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이다. 이날 기증식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와 복지 선교사인 김용일 장로, 공보 선교사인 젠슨 장로 부부, 그리고 공보위원회 위원장인 최석구 형제가 함께 했다. 최윤환 장로로부터 기증서를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의 이세웅 총재는 “지금까지 기증 받은 1,800여대의 휠체어는 유용한 곳에 잘 전했다.”며 감사의 말과 함께 감사패를 전했다. 또한 그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감사패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이아몬드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봉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최윤환 장로는 이날 기증식에서 “자신이 일을 해서 얻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이 베푸는 것으로는 삶을 가꿉니다.”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랑과 봉사, 그리고 베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윤환 장로는 마지막으로 “돈으로 베푸는 것도 아름답지만 시간을 희생해서 봉사를 베푸는 것은 더욱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며 기증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가치관과 사명을 전했다. ■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공보 선교사로 봉사하는 젠스 장로 부부
두 사람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2008년 3월부터 마우어 장로 부부의 뒤를 이어 새로운 공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젠스 장로 부부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이미 지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서 선교부 회장으로 한국에서 봉사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2년에 젠스 장로가 전임 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했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에 공보 선교사로 부름 받은 젠스 장로는 20여년만에 다시 찾은 한국이 “무척 반갑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교회를 알리는 일은 어렵지만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걱정하

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젠스 장로 부부는 한 목소리로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공보 사업을 위해 “한국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공보 선교사로 봉사했던 마우어 장로 부부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한국에 대한 애정과 선교 사업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못했다. 어느 비오는 여름날 성전 문 앞에서 크게 넘어진 후,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누운 채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군요!”라고 중얼거렸다는 마우어 자매. 그녀는 선교 사업 내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며 환하게 웃었다. 마우어 장로는 그런 아내를 보고 있다가 조용히 한 마디를 덧붙였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용기를 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던 두 사람은 1년 6개월 전 한국을 찾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국을 떠났다.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세미나리 졸업식 - 지난 2008년 2월 23일 토요일 서대문와드에서 배동철 회장의 감리로 서울 스테이크 세미나리 졸업식이 열렸다. 서울 스테이크의 세미나리를 참석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과 동 종교 교육원 이재훈 형제가 참석해 청소년들을 축하해 주었다. 총 15명의 청소년들에게 세미나리 증서가 발급되었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연학 기자>

초등회 용기반 영어 활동의 날 - 지난 2008년 2월 23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초등회 용기반에 해당된 회원과 구도자 어린이 54명, 초등회役員 및 전임 선교사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고, 회원과 구도자 어린이들이 전임 선교사들과 친해지도록 영어 활동모임을 가졌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지은 기자>

합창 대회 - 지난 2008년 2월 23일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와드에서는 동 스테이크 회원들이 함께 한 합창 대회가 있었다. 이 날에 도봉와드 합창단은 찬송가 "아름다운 세상"을 고운 음성으로 들려준 다음 지휘자와 합창단이 하나되어 무반주로 "소나무"를 들려주어 이색적인 시도를 하였고 노래, 복장, 분위기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서 스테이크

발산와드가 방화와드로 이름이 바뀜
화곡와드 감독: 전경일(전임: 이재훈)

마산 스테이크

거제 지부 지부 회장: Dan Patrick Mcwiggins(전임: Mckinley N. Patrick)
창원와드 감독: 이용재(전임: 임준덕)

부산 스테이크

광안와드 감독: 문경호(전임: 정용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7기 15명/해외 5명



강지훈 장로
서울 영등 스테이크
성남 와드
캘리포니아 엘에이
선교부



박훈민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대전 선교부



고홍순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방애라 자매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권기헌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부산 선교부



백승익 장로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대전 선교부



권오준 장로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서울 선교부



백인우 장로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대전 선교부



노순구 장로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선교부



안민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대전 선교부



류기욱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유영호 장로
전주 스테이크
정음 와드
서울 서 선교부



민광준 장로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이동주 자매
울산 지방부
신정 지부
템플 스퀘어



박성혜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이선기 장로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부산 선교부



조현정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템플 스퀘어



최정훈 장로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지명하 장로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하영수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대전 선교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국 취업 센터

“교회의 한글 홈페이지에 채용정보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도와서 회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한국 취업 센터’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한글 홈페이지에 채용 정보를 소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lds.or.kr/교회조직/취업센터/채용광고>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채용 정보가 실릴 예정입니다.

1. 교회 조직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2. 교회 회원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3. 교회 회원이 다니는 직장의 채용 기회를 회원에게 소개할 때.
4. 교회 회원이 추천하고 싶은 직장을 소개할 때.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의 홈페이지에 직장을 소개하려는 회원은 양식 ‘채용정보’를 작성하여 취업 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양식은 감독, 지부 회장, 스테이크 취업 전문가 또는 취업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접수한 채용 정보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하기까지 약 3~5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교회의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채용정보’는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며, 취업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취업하는 본인과 채용하는 조직에 있습니다.

한국 취업 센터

전화: 02-2232-1441(내선 365)

팩스: 02-2237-3995

휴대 전화: 010-9203-2639